김진무의 중국불교의 고승들 ❷ 지루가참(支婁迦讖)



▶ 한줄 요약
동한 시기에 본격적으로 불교의 경전을 번역하기 시작하였는데, 안세고와 지루가참이 바로 '양대 역경가'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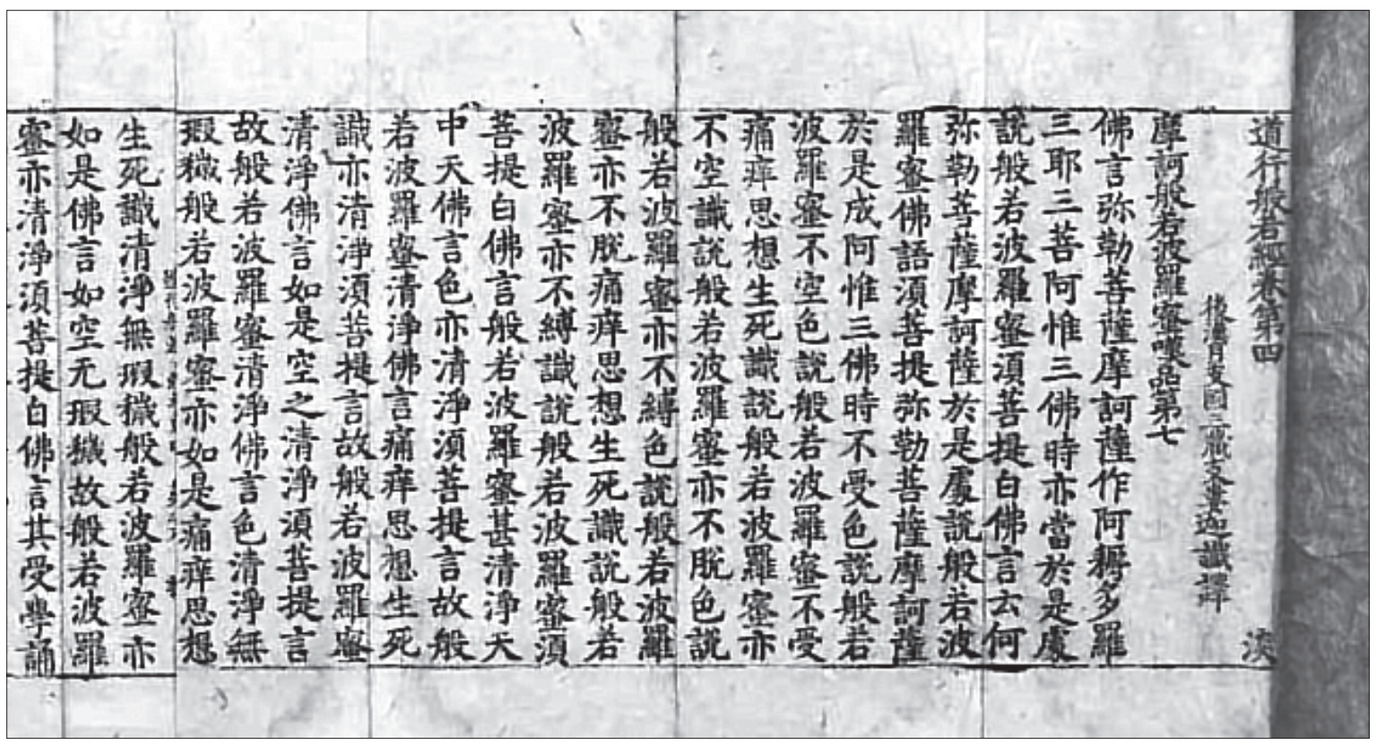
중국에 본격적으로 부처님 혜명 펼쳐

동한(東漢) 시기 환제에 이르러 황권에서는 안세고를 동원해 적극적으로 불경을 번역하는데, 그것은 중국 민중에게 불교를 이식(移植)하여 새로운 통치이념을 수립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다고 하겠다. 황권에서 안세고를 주목하였던 까닭은 당시 시대상황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서한(西漢) 황권은 법가(法家)를 통치이념으로 채택한 진(秦)의 가혹한 법치를 해소하고자 살인, 도둑질, 상해 등과 관련된 중요한 세 가지 법령만을 남기고 모든 법률을 폐기하였으며, '무위이치(無爲而治)'를 제창하는 도가의 황로학(黃老學)을 통치이념으로 채택하였다. 이러한 황로학에 입각한 통치는 이른바 '문경의 치[文景之治]'라고 칭하는 문제와 경제의 태평시대가 40년 동안 지속되었고, 그에 따라 도가 사상이 민중들에게 광범위하게 삼투되었다. 그러나 황로학 역시 한계를 노정하여 무제(武帝)에 이르러서는 백가를 배척하고, 오직 유가만을 숭상하는[罷黜百家, 獨尊儒術] 통치이념을 채택하였다. 그렇지만 당시의 유학은 진시황의 분서갱유(焚書坑儒)에 의하여 사라진 유가경전을 복원하면서 경학(經學)이 주류를 이루었고, 경학은 주석(注釋)에 매몰되면서 다만 관직을 얻는 수단으로 전락하여 서한은 망하게 되었다. 한편 황로학은 황로도(黃老道)로 변용되면서 점차 종교적 색채를 지니게 되었고, 중국 민중들은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도가 사상을 그리워하게 되었다. 서한을 계승한 동한에서는 비록 유학을 통치이념으로 표방하지만, 황로도의 신선방술(神仙方術)이 유행하였으며, 더욱이 황제와 황실에서 이를 숭상하여 많은 방술사들이 조정의 고위관직을 차지하게 되었다.

당시에 유행했던 신선방술은 주로 '장생불사(長生不死)'를 추구하였으며, 노자(老子)는 이미 우화등선(羽化登仙)한 '신(神)'의 지위에 올랐다고 하겠다. 이러한 장생불사에 이르는 방술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취구호흡(吹呴呼吸)', '토고납신(吐故納新)', '웅경조신(熊經鳥伸)' 등의 '수기(守氣)'를 통한 양생법이다. 그런데 안세고가 전한 '선수학'은 이와 상당히 유사한 경향이라고 하겠다. 안세고가 번역한 경전 가운데 가장 유행했던 경전이 바로 〈안반수의경(安般守意經)〉인데, '안반수의'는 바로 '수식관'을 의미하며, 이를 통하여 사선정(四禪定)에 들면, "천지를 통제하고, 수명(壽命)을 길게 하며, 신덕(神德)을 떨치고, 천병(天兵)을 물리치며, 삼천(三千)세계를 움직이고, 모든 시간에 옮겨가며, 팔부사의(八不思議)를 행한다."(康僧會, 〈安般守意經〉, '序')고 했다. 그에 따라 당시 안세고의 선수학은 신선방술과 유사하면서 더욱 뛰어난 것으로 받아들여져 유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황권에서는 서역의 불교에 아비다르마와는 차별적인 대승불전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에 따라 대승경전도 또한 번역하게 된다. 이러한 대승경전의 번역을 바로 지루가참이 하게 된다.



지루가참이 번역한 〈도행반야경〉.

지루가참은 흔히 줄여서 지참(支讖)이라고도 한다. 〈불조통기(佛祖統紀)〉 권35에서는 건화(建和) 원년(147)에 낙양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이는 안세고보다 1년이 빠르다. 그러나 지참이 번역한 시기는 광화(光和, 178~183)와 중평(中平, 184~189) 연간이다. 따라서 건화 연간에 번역을 시작한 안세고보다 훨씬 후대라고 할 수 있다.

지참의 전기는 안세고와 같이 〈고승전(高僧傳)〉 권1과 〈출삼장기집(出三藏記集)〉 권13에 "본래 월지국(月支國) 사람이다. 행실이 순수하고 깊이가 있으며, 성품이 개방적이고 영민하였다. 법과 계를 받아 지녀서, 열심히 정진한 것으로 유명하였다. 여러 경전을 암송하였으며, 법을 선양하는 데에 뜻을 두었다."고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으며, 경전을 번역한 이후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동한 말에 전란 등의 극심한 혼란으로 관련된 자료들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지참이 번역한 경전은 전적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14부 27권(혹은 15부 30권)의 경전을 번역하였다고 한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수능엄삼매경(首楞嚴三昧經)〉, 〈반주삼매경(般舟三昧經)〉, 〈도행반야경(道行般若經)〉 등의 대승에 속하는 경전들이다.

〈출삼장기집〉의 '신집찬출경율론록(新集撰出經律論錄)'에 따르면, 지참이 번역한 〈수능엄삼매경〉은 요진(姚秦)에서 활동한 구마라집(鳩摩羅什)에 이르기까지 약 200년 동안 7종이 번역되었다고 하지만, 현존하는 것은 구마라집의 번역 본뿐이다. 이 경전은 바로 대승의 선관(禪觀)을 주로 논하는 것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전이지만, 동한 시기에는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수능엄삼매경〉 등 대승경전 번역
반야경전 최초번역 사상계 대전환
아미타신앙 최초로 중국에 소개해

〈반주삼매경〉도 또한 대승의 선관을 제시하는 것으로, '반주(般舟)'는 '불립(佛立)', '불현전(佛現前)'의 의미이며, 이 삼매(三昧)를 얻으면 '시방제불(十方諸佛)'이 현전(現前)함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경전에서는 정토신앙(淨土信仰)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미타불(阿彌陀佛)을 염(念)하기를 일주야(一晝夜) 및 칠주야(七晝夜)를 하면 선정의 상태에서 아미타불을 볼 수 있고, 사후(死後)에 아미타정토(阿彌陀淨土)에 왕생(往生)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아미타신앙을 최초로 중국에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이 〈반주삼매경〉은 후대에 여산(廬山) 혜원(慧遠)이 역사상 최초의 정토결사인 '연사(蓮社: 白蓮結社라고도 함)'를 일으킨 소의경전이다. 따라서 중국 정토종의 출발을 바로 지참의 역경으로부터 설정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참이 번역한 경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도행반야경〉이다. 이는 바로 반야부에 속한 경전이며, 오(吳) 지겸(支謙)의 〈대명도무극경(大明度無極經)〉, 요진 구마라집의 〈소품반야바라밀경(小品般若波羅蜜經)〉과 동본이역(同本異譯)이다. 이 〈도행반야경〉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중국에 최초로 반야경(般若經)을 번역해 소개함으로 중국불교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체적인 사상을 전환시키는 중대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지참이 〈도행반야경〉을 번역하면서 사용한 용어는 대부분 노장(老莊)의 것들을 차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도행반야'는 후에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로 음역(音譯)되고, 지혜도피안(智慧度彼岸)으로 의역(意譯)되는 Prajña Pāramitā를 번역한 것이다. 여기에서 '도행'은 바로 〈노자(老子)〉에 나오는 "대도를 행함[行於大道]"를 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후대에 '제법성공(諸法性空)'으로 번역되는 것을 '제법본무(諸法本無)'로 번역하고 있다. 물론 지참도 '공(空)'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를 '무(無)'로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성공(性空)'과 '본무(本無)'의 차이는 단순한 용어의 차이를 넘어서 심각한 철학적 사유의 차별을 가져오는 것이다. '본무(本無)'는 '본래 아무 것도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는데, 그에 따르면, '일체는 모두 본래 아무 것도 없다[本無]'는 경향으로 흐르게 되고, 결국은 〈도행반야경〉에서는 "본래 온 곳도 없고, 가서도 또한 이를 곳이 없으니, 부처도 또한 이와 같다.[本無所從來, 去亦無所至, 佛亦如是.]"라고 번역하고 있으며, 그것은 다시 "본래 없음은 또한 온 곳도 없으며, 또한 가는 바도 없다.[本無亦無所從來, 亦無所從去.]", "일체는 모두 '본무'이고, 또한 다시 '본무'도 없다.[一切皆本無, 亦復無本無.]"로 귀결되어 '본무' 조차도 부정되는 것이다. 이는 반야법의 전형적인 논리이지만, 이러한 번역으로부터 전혀 다른 새로운 사상이 배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노장 혹은 〈주역(周易)〉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은 지겸이 〈도행반야경〉을 다시 번역한 〈대명도무극경〉에 이르면 더욱 심각해진다. 지겸의 스승은 지량(支亮)인데, 이 지량은 바로 지참의 제자이다. 〈불조통기〉에 따르면, 당시에 지참·지량·지겸을 '삼지(三支)'라고 칭하며, 사람들이 "천하에 '삼지'보다 해박한 지식을 가진 이가 없다."라고 찬탄하였다고 한다. 지겸이 사조(師祖)가 번역한 〈도행반야경〉을 다시 번역했던 까닭은 당시에 이 경전이 중시되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지참은 동한에서 활동하였지만, 지겸은 위(魏)·촉(蜀)·오(吳) 삼국으로 분열된 시대에서 활동하였다. 이 삼국들 역시 새로운 국가를 위해서 통치이념을 수립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통치이념을 바로 불교, 특히 반야경전으로부터 찾고자 했기 때문에 다시 〈도행반야경〉을 번역했던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위(魏)가 건국되고, 유명한 왕필(王弼)은 바로 이 〈도행반야경〉과 〈대명도무극경〉을 통하여 현학(玄學)을 건립하는데, 그 목적은 바로 새롭게 칭제건원을 한 조위(曹魏)에 통치이념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왕필은 이러한 현학을 통하여 이전의 중국사상에 없었던 '체(體)·용(用)', '본(本)·말(末)' 등의 개념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는 모두 반야사상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또한 왕필의 현학을 '본무론(本無論)' 혹은 '귀무론(貴無論)'이라고 칭하는데, 이로부터 여실하게 〈도행반야경〉의 '본무'를 원용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왕필이 제시한 '체용', '본말' 등의 개념은 이후 중국불교뿐만 아니라 중국사상에 핵심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 당시 중국의 지식인으로서 불교의 반야사상을 이해하는 이가 거의 없었던 상황을 감안한다면 왕필의 천재성이 더욱 돋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더욱 평가해야만 될 이는 바로 그러한 반야부 경전을 최초로 번역한 지루가참이 아닐까 한다.

동한 시기에 본격적으로 불교의 경전을 번역하기 시작하였는데, 안세고와 지루가참이 바로 '양대 역경가'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더욱이 안세고는 아비다르마 계통의 이른바 '소승'에 속하는 경전을, 지루가참은 '대승'에 속하는 경전을 역출하고 있어 대·소승의 경전들이 거의 동시에 출현하게 되는데, 이 또한 중국불교의 독특한 성격을 획정하게 되었다. 동한 말의 혼란한 시대상황으로 인하여 비록 그 상세한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지만, 안세고와 지루가참의 역경은 중국 땅에 본격적인 부처님의 혜명이 펼쳐지게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前 동국대 불교문화원 부교수〉

대한불교 선밀종

종도를 위한 종단 | 수행을 위한 종단 | 더불어 가는 종단

대한불교 선밀종은 종단을 이끌어 나아갈
간부스님 및 종도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옵니다.

사암등록 및 안내

▣ 제출서류
·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판 사진 3매(장삼,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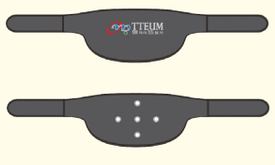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종단사업 참여 안내

포교를 위한 종단사업을 추진하오니
운영(지분참여)에 관심있는 분은 참여바랍니다.

▣ 전자사업(전자뜸질기)
· 국내특허 : 10-2014-0143968 (전자뜸질기)
· 국내상표출원 : 4-2014-058697-9 (전자뜸질기)

뜸의 효과를 세계최초로 전자로 대체 개발한 임맥의 단전, 중완, 신궐, 양천추, 독맥의 명문, 현추, 양관, 양신유의 뜸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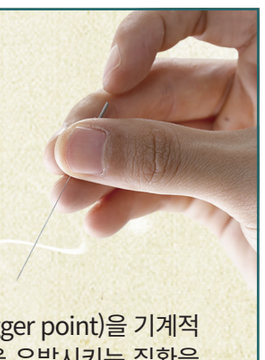


문의전화 ▶
010-3134-8484

대한불교 선밀종 총본산 관정사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갓바위로 449 www.sunmiljong.or.kr 총무원 T. 053)854-0803 / F. 053)854-0804

우공침술 개인지도



우공침술의 TLS 침법은 근육의 통증유발점(trigger point)을 기계적으로 자극하여 몸의 통증을 멈추게 하고 통증을 유발시키는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혁신적인 침법입니다.
TLS 침법은 통증유발점을 기술적으로 자극하는 침법이므로 경락의 경혈들과는 무관한 과학화된 침법입니다. 따라서 통증치료에 관한한 TLS 침법이 단연 으뜸임을 자부합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TLS 침법을 개인지도를 통해서 딱 6일 만에 배우실 수 있습니다.
딱! 6일 동안만 시간을 내시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TLS 침법을 정확하고 완벽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침법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딱 6일 동안만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딱 6일 만에 고통스러운 통증은 물론, 많은 질병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있고 멋진 전문 침술인으로 변신시켜 드리겠습니다.
우공침술원의 침술 개인지도는 1:1의 완벽한 실습위주로 실시되며, 지방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수강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NAVER 우공침술 ▼ 검색 하시면
저의 블로그에서 '신보선의 침의학과 건강·의학 칼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010-4054-7110

우 공 침 술 연 구 원